

정치인 연쇄면담 끝낸 DJ, 잇단 정치 발언 왜 했나

“여권 분열 안돼”... 대통합 메시지 전달

민주·우리당 2차 탈당 움직임에 큰 영향 미쳐

“정치권 이해득실에 DJ 진정성 훼손” 비판도

지난 20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시작했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혼수 정치’가 30일 이해찬 전 총리와 면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10일 동안 김 전 대통령은 정치권 인사들과의 잇단 면담을 통해 “국민은 양당 구도를 원하며 사생결단을 해서라도(범여권)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며 반복된 대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김 전 대통령은 30일 이 전 총리를 만나서도 “역대 대선에서는 후보가 먼저 부각되고 후보 중심으로 연합이나 통합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정당이 중심이 돼 대통합 정당을 만들고 거기서 후보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선주자 연설회나 후보 단일화관련 보도는 ‘선 단일정당’ 구성에 무게를 두고 단일정당에서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소의 견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던 범여권과 민주당은 물론 전통적 지지층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당장 소통을 추진하는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된

데다 열린우리당의 2차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범여권 대통합론은 점차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조언이 6월 이후 범여권 대통합 흐름을 가속시키는 것은 물론 추후 범여권 대통합을 이끌 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의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30일 오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진 체육대회에서 시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2차 탈당 가시화 및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대통합 움직임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며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추후 범여권 대통합의 가이드 라인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여준 범여권과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여권과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결과적으로 DJ의 진정성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을 통합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바로 사분오열된 우리들”이라며 “현실 정치에 개입한다며 그동안 DJ에게 던져졌던 보수수구 세력의 돌팔매는 바로 우리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여권 대통합의 과정에서 범여권 제정파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과연 김 전 대통령의 진정성이 현실화되느냐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대원 경정 금품수수 정황 없어”

이택순 청장 외부행사 잇단 취소 청사서 근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남대문경찰서 간부 2명이 한화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다.

30일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과 이진영 전 남대문서 강력2팀장 등의 주변 인물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 경정 등이 한화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미확인 첩보를 입수하고 강 경정과 이 경위를 포함한 수사팀 간부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내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강 경정과 이 경위가 4월 초중순 범서방과 행동대장 출신 조 작폭력대 오모씨를 최소 3차례 만난 사실을 이 경위의 진술로 확인했으나 강 경정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안락에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외부 행사 참석 약속을 잇따라 취소한 채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공정한 정책토론 합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6당 원내대표가 30일 KBS 본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당정책 토론회에 앞서 손을 잡고 공정한 정책토론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효석, 열린우리당 장영달, 국민중심당 정진석, 한나라당 김형오, 민주노동당 천영세, 중도개혁통합신당 최용규. /연합뉴스

운동 범국민대회’와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대한범죄학회 주관 소년범 선도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

이 청장이 고교 동기동창인 한화

증권 유모 고문과 지난달 29일 통화하면서 보복폭행 사건에 관한 얘기를 나눴던 사실이 최근 새롭게 밝혀진 이후 일종의 근신 차원에서 외부 행차를 자제한다는 추측도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盧대통령 탄핵 잘못했습니다”

강운태 전 의원 공개 사과



지난 2004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강운태 전 의원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 중 공개 사과한 것은 강 전 총장이 처음이다.

강 전 사무총장은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선 정작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치를 했던 것이 많은 정치인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예로 들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당시의 탄핵사유는 다분히 본질 문제가 아닌 감정적 차원의 대응으로 탄핵제도를 남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총장은 “특히 국민의 뜻을 살피지 않고 탄핵에 찬성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힘을 믿었던 것으로 다수를 앞세운 대의정치의 횡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온몸으로 싸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의 통찰력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탄핵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 노무현 대통령과 3월 초봄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탄핵반대, 민주수호의 촛불 시위를 하며 고생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낙마했던 강 전 총장은 지난 1월 17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협비리 의원 3~4명 추가 수사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한 국회 보

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 이외에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을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30일 “김춘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으며 관련 참고인 등은 많은 조사를 했고, 가급적 신속하게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정책토론회 개선 목소리

대선주자들 “사회자 질문 줄이고 상호토론 늘려야”

한나라당 내에서 29일 열린 광주 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을 놓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정책토론회가 실질적인 경선전의 시작이란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았지만, 주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명실상부한 정책대결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

당장 각 대선주자 진영마다 형식적인 사회자의 질문시간 등을 줄이고 후보 상호토론 시간을 최대한 늘려, 심도 있는 정책검증의 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도부 내에서도 패널리스트 제

도 도입 등 형식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 질문 세례를 받았던 이명박 전 시장 측은 주로 행사 진행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 측 박형준 대변인은 30일 “현장에서 청중의 박수를 사회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발언시간을 초과해도 마이크를 통제하지 않은 점 등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이 전 시장에 대한 질문을 제3자를 통해 하는 방식 등 비신사적 행동을 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본격적인 정책 검증을 위한 충분한 상호토론의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평화방송에 출연해 “토론회고 답변하면 재질문, 재반박의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한번 하고 마니 긴박감이 떨어진다”면서 “당에서 토론방식을 바꿔, 시간도 충분히 하고 단답형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군소 후보들도 현행 ‘2분 질문-2분 답변’ 형식의 상호토론을 일문일답 식으로 고치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토론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일문일답 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아직 정책 허점이나 보완할 부분이 구체화된다”고 했으며, 원희룡 의원 역시 “국민의 질문이나 사회자 질문이 너무 빠주는 식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를 초빙해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매일공개설명회 :10시, 2시, 4시, 6시, 8시 www.epms.co.kr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생 PMS출신

= 2008학년도 총 1260명 모집 =

- ★ 의학전문대학원 :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포천중문의대
- ★ 치의학 전문대학원 : 전남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제1회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 개설강좌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학) 한지능력시험 대비반



개강: 6월 1일

의·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대표입시브랜드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227-8088, 222-8088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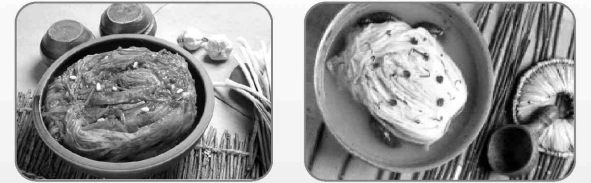
● 의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제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